

예수님 이야기

⑦ 삭개오

나 레 이 셴 어느~날! '여리고'라는 동네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웅성웅성)

여 자 1 뭐? 누구? 누가 오고 있다고?

남 자 1 그 나사렛 예수 말이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그 예수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여 자 3 죄인부터 세리까지 두루 만나시고 똥똥하든 날씬하든 키가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사랑해주신다는 예수란 사람이 바로 그분인가?
나 SNS로만 봐서 진짜 궁금했는데!!

삭 개 오 뭐?! 키 작은 사람도 사랑을?!... 예수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와~ 궁금하다.... 나도 사랑해 주실라나?

나 레 이 셴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 중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득바득 탈탈탈 털어가며
세금을 받아가는 세리장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척 궁금했지만 키가 작아
도저히 볼 수 없었고,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삭개오에게 누구도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 린 이 아저씨 키 진~짜 작다! 우헤헤헤 머리도 없어 크크크크
똥똥보 똥똥보 대머리 아저씨다~~~

삭 개 오 쓰읍! 후..... 저리 가라 꼬맹아

나 레 이 셴 삭개오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꼭, 꼭, 꼬오오오오옥 보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법을 궁리하던 삭개오는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나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삭 개 오 헉헉..!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 그렇지!! 이쪽으로!! 오! 오! 온다 온다!! 오신다!!





나 레 이 선 바로 바로 바로 그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바로 그 곳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 님 삭개오야! 거기서 뭐하냐;;; 빨리 내려와라~ 집에 혹시 빈방 있니? 오늘 너희 집에서 자도 되겠어?

나 레 이 선 삭개오는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삭 개 오 저... 저희 집이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독백) 헉 저분이 나의 이름을...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실까?
아니, 우리 집에 방 많은 건 또 어떻게 아셨을까? 우와.. 장난아니다..

.....

나 레 이 선 삭개오는 곧 바로 나무 아래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수군)

남 자 1 뭐야 이거! 예수가 왜 삭개오네 집에 간다는 거지?

남 자 2 참 실망이네.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어떤 사람이냐 궁금했는데 와서는 결국 저런 사람이라 노는구만?

여 자 3 흥. 끼리끼리 논다더니!

.....

나 레 이 선 한편, 삭개오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엄청나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갑자기 밝은 얼굴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삭 개 오 주님! 이제 저는 저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서 번 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 주겠습니다.
이거 뽀 꽃혀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예 수 님 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나 레 이 선 이웃들에게 미움만 받던 죄인 삭개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알려지고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하고 어울렸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평균 해면보다 259m 낮은 지점에 있고 수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이다. 구약시대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정도 떨어져 있고, 신약의 여리고는 이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해 있다. 오늘의 여리고는 신약의 여리고 동쪽으로 2km 지점에 있다.